현불 논단

인고 아이콘 매화처럼…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매화가 사군자 중 처음인 이유
봄을 알고 먼저 꽃 피우기 때문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개화하기에
매화는 인고의 상징으로 칭송돼
한 선지식 오도송엔 희망 의미로

인고를 통해 매화가 꽃 피우듯이
우리도 코로나19를 견디어 보자
희망은 인고하는 사람의 몫이다

근자 동장군이 물러나고, 절기상으로 입춘이 지났다. 이즈음이면 매화가 그려진 찻잔으로 차를 마신다. 이런 객기라도 부려야 비록 서울 살이지만 봄을 맞이하는 방랑객 느낌이라고 할까? 매화는 한 겨울 혹독한 추위(시련)를 견디고 봄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대표 상징이다.

매화는 사군자(梅蘭菊竹) 가운데 하나이다. 사군자 중 처음인 매화가 봄을 알아채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한다. 그래서 나이보다 성숙한 사람을 '철 들었다' 고 하는데, 이 매화에 비유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된 것이다. 필자가 매화를 예찬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인고' 와 '희망' 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첫째, 매화가 추위를 무릎 쓰고 찬란하게 꽃을 피웠다는 것은 인고(忍苦)의 세월을 견디었다는 의미다. 당나라 조사선의 완성자인 황벽 희운(?~850)은 어록 〈전심법요〉에 이런 말을 남겼다. **"추위가 한차례 뼈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不是一番寒徹骨 爭得梅花博鼻香)"**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가 해탈이라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야 함을 드러낸다.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경(詩經)〉 구절을 인용해 "매화는 혹한의 고통을 다스려야 맑은 향을 발산하고, 사람은 어려운 고난을 만나야 그 절개가 뚜렷이 드러난다(梅經寒苦發淸香 人逢艱難顯其節)"고 하였다.

둘째, 매화는 희망을 상징한다. 어느 비구니 스님의 오도송에도 매화가 등장한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 다녀도 봄을 찾을 수가 없구나. 짚신이 다 닳도록 온 산을 찾아 헤매었네. 지쳐서 돌아와 우연히 뒤뜰을 거닐다 보니 매화꽃이 거기 피어 있더라." –〈학림옥로(鶴林玉露)〉

여기서는 도(道)가 멀리 있지 않음을 매화에 비유한 것이지만, 필자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싶다.

매화가 인류역사에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식물인 것만은 분명하다. 인류사에 수많은 (유정 · 무정)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진 존재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화가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우기에 고금을 초월해 많은 예술인들이 매화를 예찬하는 거라고 생각된다. 이 매화에 우리네 삶을 반추해보자.

인간 누구에게나 생로병사를 비롯해 고난과 고통은 똑같이 주어진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어느 누구인들 그만의 고통과 고뇌가 있다. 혹 왕후장상일지라도 그에 따른 고(苦)가 있는 법이다. 누구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는 가볍고, 누구에게는 무겁고가 아니라 똑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평등하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기업체 사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어느 위치의 사람이든 짊어질 인생의 책무는 똑같은 법이다.

그러기에 삶의 진흙탕에서 똑같이 주어진 고난을 헤치고 일어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인 것이다. 누가 먼저 툴툴 털고 일어나는가가 관건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곤혹을 치루고 있다. 중소규모 업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도 취업으로 힘든 현실이다. 솔직히 사찰의 스님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현재 바이러스 전염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 싫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인가.

인고의 시간을 견디자. 살다보면 살아진다고 하지 않던가! 매화가 인고를 통해 봄에 꽃을 피우듯 현재 우리도 차가운 겨울을 묵묵히 견디자. 모든 만물이 영원하지 않는 무상(無常)한 법. 희망은 견디는 자의 몫이다.

社 說

비구니史 연구, 더 많은 관심 필요

전국비구니회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비구니 관련 역사와 인물, 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 · 조사 · DB구축에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비구니는 한국불교 역사 속에서 오롯이 승가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에도, 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조명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구니승가연구소가 나서서 한국비구니사를 정리하고 근현대 비구니자료집은 물론, 한국 비구니 구술 아카이브 구축사업과 비구니 · 여성불자 디지털 인물백과사전 발간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근현대를 관통하는 시기 비구니와 관련한 기록은 더욱 미미하다. 비구니 구술 아카이브 구축은 근현대를 살아온 비구니 스님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을 통해 비구니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주옥같은 자료가 될 것이다.

비구니와 여성불자 인물백과사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 내 비구니스님과 여성불자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발굴 작업의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활동과 이력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한국 비구니는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불교의 한축을 묵묵히 담당하며 포교, 문화, 교육, 학술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이젠 비구니 역사와 역할, 가치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체계화해 대중에게 드러내야 한다. 기초자료를 토대로 비구니에 대한 심층연구가 이어진다면, 이는 곧 비구니 위상 제고와도 직결될 것이며 동시에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비구니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재조명은 앞으로 한국불교에서 비구니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원불자회 출범에 부쳐

서울시의회에 작지만 큰 모임이 탄생했다. 바로 서울시의원불자회다. 2월 4일 서울시의원불자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21명의 회원의원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서울시의원불자회는 그동안 구심점이 없어 방황했던 불자의원들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수십년의 역사동안 불자회가 없었다. 기독교계가 의회 창립 초기부터 활동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9대에 이르러 불자의원들의 공동신행활동이 조금씩 진행됐고, 10대 시의회에서야 모임이 상설화됐다. 2020년 12월 최기찬 의원을 중심으로 김광수, 경만석 의원 등이 힘을 모았고, 발기인대회를 열게 됐다.

서울시 의회는 수많은 수도권 사찰들의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영향을 끼치는 곳이다. 국회 정각회와 같이 서울시의회에서 불교관련 법 제개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불자회가 조계종 정식인가로 신도조직으로 발돋움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2020년에는 강원 공공기관 불자회가 발족했고, 공무원불자연합회를 중심으로 이제 공사 등 기관 불자조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종단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지원조직의 상설화다. 직장직능에서의 불자조직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시로 그 조직의 간사들과 연락하고, 연합법회 등 각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 활동을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회는 발전하고 조직화는 불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서울시의원불자회의 발족을 계기로 불자조직화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길 기원한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알수록 닮은 한국과 스리랑카

한국에서 살다보면 스리랑카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한국과 스리랑카는 상당히 유사한 문화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함께 아시아 권역에 포함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걸쳐 아시아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아주 작은 연관성이어서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웃어른에 대한 존경과 '정' 의 문화입니다. 어른들을 존경하며 노부모를 돌보고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베풀며,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받고, 대가족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입니다. 특히 손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중히 여기는 덕목은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치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또 다른 중요한 문화적 측면은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불교사상이 3~4세기부터 전파되어 신라, 고려 또 통일신라시대 호국불교가 시행되면서 스리랑카와 한국 간에 분명히 교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리랑카와 한국의 불교 연결은 13세기에서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처럼 두 나라 사이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불교문화 교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19세기 제2의 아쇼카로 부르는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 스님의 방문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스리랑카인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방문으로 서울 조계사의 석탑에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하여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방한을 반기던 모습을 〈조선불교통사〉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1913년 8월20일 실론섬의 고승인 다르마팔라가 서울에 와서, 21일 밤에 승속 남녀 수십여 명이 남산정의 화월루에서 환영 연회를 열었다. 달마선사가 환영 석상에 나와, 부처님 사리 한 과를 모셔 조선불교 대표자에게 전하였다. 이에 조선 전국에서 6000여 승려 및 모든 시주자들이 돈을 내어 서울 수송동에 각황사를 고쳐지었다."

그의 방문 이후 1927년에 빠알리어와 초기불교를 공부하기 위하여 스리랑카로 유학을 가시게 되는 성일 스님과 영재 스님 등 두 분이 최초로 스리랑카를 방문한 한국인이 됩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한국 스님과 학자들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빠알리어와 초기불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스리랑카 스님들도 동국대학교를 포함하여 여러 대학과 강원, 사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스리랑카 스님들 30명을 비롯한 이주민 2만 5천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는 스리랑카 포교당은 5곳 정도입니다. 이 중 한국에서 포교를 하고 있으면서, 최초의 스리랑카 식 사찰로 설립된 곳이 마하위하라입니다. 이 수많은 세월 동안의 교류가 역사가 되어 하나로 묶이는 시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한국 최초의 스리랑카불교사원 '마하위하라'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